



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인종과 관련있는 머리스타일 또는 텍스처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을 분명히 하는 법안 **S6209A/A7797A**에 서명

**Cuomo** 주지사: "우리 미국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단순히 머리 스타일 또는 텍스처 때문에 소외받고 차별당해 왔습니다. 이 법안 서명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인권법(Human Rights Law)과 학생 존엄성 법(Dignity for All Students Act)을 개정하여 머리 스타일 또는 인종과 관련된 특성 등 인종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분명히 밝히는 법안 S.6209A/A.7797A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단순히 머리 스타일 또는 텍스처 때문에 소외받고 차별당해 왔습니다. 이 법안 서명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권법(Human Rights Law) 292항과 학생 존엄성 법(Dignity for All Students Act) 11항을 개정하여, "모발의 텍스처와 머리 스타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성"이라는 인종에 대해 정의하는 새로운 세부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규정은 즉시 발효됩니다.

상원다수당 대표인 **Andrea Stewart-Cous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머리 스타일 또는 텍스처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다양성이 바로 뉴욕주를 위대하게 만들며,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해야만 합니다. 다양성에는 모든 뉴욕 주민의 머리 스타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는 상원 다수당이 자랑스럽게 통과시킨 이 법안을 지지해주신 **Jamaal Bailey** 상원의원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학교나 직장에서 차별받아서 안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경우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머리 스타일이

전문적이지 않다거나 공공장소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차별 정책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몰며 그들의 정체성을 깎아내립니다. 뉴욕주에 불평등이 설 곳은 없습니다. 하원 다수당은 모든 뉴욕 주민이 존엄과 존경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Jamaal T. Baile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 스타일 선택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지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서명하여 타고난 머리 스타일을 근거로 한 인종 차별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서 뉴욕주를 선구자로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Tremaine Wright** 하원의원, **Carl Heastie** 하원 의장,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 및 그의 수석비서관이자 변호사인 **Shontell Smith**의 리더십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리더십이 발휘될 때,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Tremaine S. W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17년간 천연 모발을 유지해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이번 법안은 매우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인종 및 젠더 평등 지지자인 **Adjoa B. Asamoah**와 고질적인 머리 스타일 차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군대가 불공정하게 흑인 여성에게 영향을 주게 될 머리 스타일 금지 규정을 제안하자 원내 흑인회(Congressional Black Caucus)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Marcia Fudge** 하원의원이 반대 행동을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뉴욕에서 크라운 법(CROWN Act)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성과는 물론, 뉴욕주가 처음으로 이 역사적인 법안을 양원에서 통과시킨 주가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Heastie** 의장과 **Stewart Cousins** 다수당 대표의 리더십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